

# 大巡上帝觀 研究

李京源\*

## 目 次

- |                       |  |
|-----------------------|--|
| I. 序言                 |  |
| II. 上帝信仰의 傳統          |  |
| 1. 上帝信仰의 歷史           |  |
| 2. 上帝의 位格과 權能         |  |
| (1) 上帝·天의 語義          |  |
| (2) 上帝의 位格            |  |
| (3) 上帝의 權能            |  |
| 3. 諸神 및 人間과의 關係       |  |
| III. 上帝의 人身降世         |  |
| 1. 降世의 背景             |  |
| (1) 人尊時代의 到來          |  |
| (2) 先天의  현실과 廣救天下의 使命 |  |
| 2. 上帝의 人身降世와 그 役事     |  |
| (1) 上帝의 人身降世          |  |
| (2) 大役事로서의 天地公事       |  |
| 3. 上帝 人身降世의 意義        |  |
| IV. 上帝의 化天과 教運        |  |
| 1. 上帝化天의 意義           |  |
| (1) 天地公事의 確定          |  |
| (2) 道通의 傳授            |  |
| 2. 教運                 |  |
| (1) 道主의 宗統 계승         |  |
| (2) 宗團創設과 信仰體系        |  |
| V. 結言                 |  |

## I. 序 言

대순상제관은 대순사상에 있어서 그 신앙의 대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사상은 그 종교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위주로 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종교자체의 존립에 대한 위협은 물론 신앙인의 입장에서 독실한 실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 있어서도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립은 오늘날 다변화된 종교사회에 하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종교사상적 토대가 되는 것이라 하겠다. 대순상제관이 갖는 사상적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간의 마찰과 상호 불이해의 원인은 무엇보다 자기 신앙의 대상에 대한 독선적인 고수와 타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풍조는 결국 종교를 난립시키고 사회구성원들간의 불화를 조성하게 된다. 하지만 종교단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 볼 때 그 부정적 현상에 비해 오늘날 인간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되는 현대의 종교학적 흐름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이며 이는 종교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한 상호비교적 연구로써 각 종교전통이 지니는 특수성은 어디까지나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수성이 또한 자기 초월적이고 자기 부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며, 나아가 종교적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두가 합심하여 이를 밝혀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상제관이라 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신에 대한 신앙의 관념이 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관념은 비록 그 호칭은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唯一無二하다는데에는 합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상제관연구의 중요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바로 상제의 위격을 바르게 정립하고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절대자의 위상을 밝히므로써 그 보편적 신앙을 확보하게 되며,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하나의 궁극적 존재에서부터 나왔음을 인식하고 인류공동체 사회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실로 종교의 시작과 끝이 담겨 있는 문제이다.

대순상제관에 있어서의 특수성은 바로 上帝의 人身化現에 있다. 즉 신적 존재로서만 인식되어 왔던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는 점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대역사는 실로 일반의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제의 화천이후 발생하는 그 위격에 대한 올바른 정립의 문제

는 여타 상제님을 신앙하는 단체에 대하여서도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 하겠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상제관 연구는 먼저 상제님 강세 이전 神的 존재로서의 상제관을 동양적 전통에 입각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신적 존재로서의 상제가 人身으로 강세하게 되는 배경을 고찰하며, 이후 강세하신 상제의 役事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상제 화천이후 바르게 정립되는 상제의 위격을 대순사상에 입각하여 차례대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 II. 上帝信仰의 傳統

### 1. 上帝信仰의 歷史

종교적 존재인 인간은 종족과 시대를 초월하여 生의 근원인 궁극자에 대한 물음을 제기해왔으며, 각각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왔다. 동양인들 역시 고대에서부터 이 궁극적 존재에 대해 깊은 관념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념은 동양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궁극자에 대한 명칭이나 관점 및 관계성은 개인의 사유양식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相異하고 또한 변화되어 왔다.<sup>1)</sup>

동양고대사회에 있어서 궁극자에 대한 관념은 주로 인격적 최고신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다. 殷墟 발굴이후 甲骨卜辭에 따르면<sup>2)</sup> 人格的 主宰神인 上帝와 祖上神에 대한 제사의 卜辭가 대부분이며, 이때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기결정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다.<sup>3)</sup> 모두 上帝의 의사를 묻는 占에 의하여 행동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周代로 넘어오면 그 대체적인 사상이 人文主義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인간의 힘의 승리를 과시하고 인간이 만든 조직과 제도에 강세를 두어 집단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sup>4)</sup> 이에 따라 궁극자에 대한 관념도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정립되는 天事상으로 형성되게 되었다.<sup>5)</sup> ‘天命’이라든지 ‘德’이라는 개념은 모두 궁극자인 上帝天과 인간을 매개시키는 관계에서 그 개념이 도출되어 나온

1) 崔基福 『儒敎와 西學의 思想的 葛藤과 相和的 理解에 관한 研究』 1989, 성대 박사논문, p.204 참조

2) 甲骨과 金文의 古資料는 중국고대문화를 재인식케 했으며, 기원전 14세기(殷 武丁時)의 당시문자를 볼 수 있고 그 사실을 실증하여 前史時代를 歷史時代로 밝혔을 뿐 아니라 동시에 고고학적, 인류학적 귀중한 자료도 되는 것이다. (柳承國 『동양철학연구』 근역서재, 1988, p.13)

3) 上書, p.71

4) 上書, pp.71~72

5) 본래 天은 殷人의 ‘帝’를 개량한 것이다. 그런 天이 孔子代에는 ‘先王’觀의 변화로 종교에서 도덕의 근원자로 발전한다. 孔子는 당시의 사회혼란을 도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절대가치의 세계인 天으로 나아가는 길을 도덕을 통해 이루기 위해 天을 인간화했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堯舜이다. 이후 이것은 ‘先王論爭’으로 비화된다. (孫世濟 『天道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대 박사논문, 1992, p.3)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자 역시 전통적인 上帝觀을 이어받아 天이 의지를 갖고 만물을 주재하는 인격적인 절대자라고 인식하였으며, 天에 대한 경건과 天命에 대한 순응은 그의 삶과 사상 전체의 바탕을 이루었다.<sup>6)</sup> 반면 天과의 관계에 있어 종전과 다른 태도를 취했다면 그것은 天은 天子·諸侯·大夫 등 귀족계층뿐만 아니라 신분계급의 제한없이 모든 사람과 개별적이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공포나 경외의 대상이거나 인간에게 굴종만을 강요하는 존재가 아니라 天命을 통해 인간의 德과 性으로써 인간안에 내재한다고 믿었다.<sup>7)</sup> 즉 공자는 天의 超越성과 內在성을 자신의 성숙한 人格 안에서 조화시켰던 것이다.<sup>8)</sup>

宋代 性理學에 이르게 되면 만유의 存在根據 내지 궁극적 근원처를 先秦 儒敎와는 달리 초월적·신앙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내재적 논리적 관점에서 파악하므로써 자연히 궁극자관에 있어 종교적 측면은 약화되었다고 봄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렇다고 성리학이 上帝나 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니 儒家 經典에서 말하는 上帝나 天이 만물의 근원이며 궁극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태극과 相通하는 개념임을 인정한다.<sup>9)</sup> 다만 성리학에서는 궁극자관에 있어 인격적이고 주재적 측면보다는 不動不變의 궁극원리 내지 第一原因이라는 論理的·哲學的인 면에 더 관심을 둔 것으로 본다.

6) 『論語』에서 공자는 天, 天命, 天道를 말하여 그의 天觀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天에 대해 말한 구절을 살펴보면 憲問「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子罕「吾誰欺, 欺天乎」, 八佾「獲罪於天, 無所禱也」, 子罕「天之未喪斯文也, 匡人其如予何」, 述而「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라고 하였으며, 天命에 대해서도 爲政篇「五十而知天命」, 季氏「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堯曰「不知命無以爲君子也」라고 하였으며, 天道에 대해서는 公冶長「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라고 하였다. 이를 살펴볼 때 孔子의 天觀은 후세 儒家의 철학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주재이며 지식과 의사를 가진 실재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天道에 있어서도 비록 朱子는 天理自然의 本體로서 사람이 받은 바의 天理 곧 性과 하나임을 논했으나, 古書에서의 天道는 흔히 길흉화복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 즉 '天道는 착한 것에는 복을 주고 음란한 것에는 화를 준다.'는 따위가 모두 하늘이 사람에게 내리는 바의 녹명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결국 공자의 이른바 天·天命·天道는 모두가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가노나오키 『中國哲學史』 오이환 역 1993 pp.130~133 참조)

7) 柳承國 外『儒學原論』 성대출판부, 1992, p.71~72 참조

8) 崔基福, 上揭論文, p.206

9) 『程氏遺書』 제 11, 項11: 「天者理也, ...帝者以主宰事而名」

이상의 사실에 의거해 볼 때 동양사상의 전통속에는 고대에서 부터 엄연히 최고신(上帝)에 대한 신앙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최고신으로서의 상제 관념은 동양적 사유에 의하여 인간생활전반에 두루 미치는 위격과 권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2. 上帝의 位格과 權能

### (1) 上帝·天의 語義

天和上帝의 개념은 殷代에 있어서는 上帝라는 표현이 甲骨文에 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人格神으로서 실재성을 강하게 요구하던 古代에서 上帝란 명칭을 많이 썼고, 후대에 자연적 관찰에서 보다 추상적 개념이 발달하면서 天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러나 후대에 와서 上帝와 天의 개념은 각각 主宰者로서의 측면과 형체가 없는 至高者로서의 측면을 표현한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닌 것이라는 인식에서 혼용되고 있다. 이에 天和上帝가 결합되어 昊天上帝·皇上帝·天帝등으로도 표현된다.<sup>11)</sup>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天和上帝는 대개 동일한 至高神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sup>12)</sup> 엄격히 따지면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서는 天보다는 上帝개념이 더욱 가까우리라 본다. 그것은 그 字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즉 天은 說文에 ‘至高無上 大一’라고 하여 한 一字와 큰 大字의 합성어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sup>13)</sup> 왜냐하면 天의 본래 字形을 살펴보면 𠂔 로써

10) 『周禮』에는 天에 다섯가지 이름이 있어 각각 그 쓰임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였다. 즉 높여서 임금으로 쓰면 皇天이라 하고, 원기가 광대하다는 뜻으로 쓰면 昊天이라 하고, 사랑으로 덮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으로 쓰면 旻天이라 하고, 위로부터 아래를 감시한다는 뜻으로 쓰면 上天이라 하고, 멀리서 볼 때 푸르다(파랗다)는 뜻으로 쓰면 蒼天이라 한다하고 『爾雅』에는 봄 하늘을 蒼天, 여름하늘을 旻天, 가을 하늘을 旻天, 겨울하늘을 上天이라고 하였다.(『周禮』 春官宗伯 賈公彥疏, 『爾雅』 釋天- 金能根 『儒敎의 天思想』, 숭실대출판부1988, p.5 재인용)

11) 琴章泰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 출판부, 1994, p.182

12) 天에는 보통 다섯가지 호칭이 따르고 있다. 즉 皇天, 昊天, 旻天, 上天, 蒼天등인데 이 가운데서 皇天과 上天이 상제와 꼭 같은 것으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다. (윤성범 『韓國의 神學』 선명문화사, 1972, p.51 참조)

13) 주재용 『先儒의 천주사상과 제사문제』 경향잡지사, 1958, p.32 참조

인간의 머리 꼭대기를 둘러싸고 있는 막연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 뜻도 ‘顛’으로써 꼭대기를 뜻하며 ‘지극히 높으면서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天의 개념은 하나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보다는 인간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본 꼭대기의 추상적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반해 상제의 개념은 보다 主宰的 인격신적인 요소를 강하게 드러낸다.

帝의 字義를 살펴보면 說文에 “**𡩊** 諦也, 王天下之號, 从二 **𠂔** 聲”라고 하여 온 천하를 두루 살피면서 미치지 않는 데가 없으며 임금으로써 위(二: 이는 現「上」字의 古形)에 居하는 존재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즉 四方을 향한 四手가 뻗치는, 그래서 그 四手가 암시하는 능력이 온 천하에 미치는 者이요, 또한 극히 존귀한 者으로써 인간 위에 즉 하늘(上)에 계신 者라는 말이다.<sup>14)</sup> 여기서 주의할 것은 字形으로만 볼 때 어떠한 육체적인 암시는 없다는 점이며 단지 四方을 두루 통찰하는 上位의 無形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字義를 비교해 볼 때 天보다는 上帝의 개념이 더욱 주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마치 한나라의 군주와 같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찰하는 존재가 하늘위에 실재해 계시면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신다는 관념이 바로 上帝개념으로 집약되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 민족의 종교적 성향은 바로 이러한 上帝를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며, 上帝의 權能과 位格에 의해 그 생활방식 전체가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서 이러한 上帝觀에 대해 그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上帝의 位格

14) 주재용, 上書, pp.32~33

15) 이에 대해 조선후기 실학자 丁茶山은 비록 天(主宰之天)과 上帝가 동일한 존재에 대한 相異한 호칭에 불과함을 인정하지만 궁극자의 人格性和 主宰性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上帝」가 궁극자의 일차적인 명칭이라고 보았다.(『與猶堂全書』 II-36,20a 「春秋考徵」 「鑄案人主之稱, 或稱曰國, 或稱曰大王, 或稱曰乘輿, 非於大王之外別有國主, 別有乘輿之君也, 上帝或稱天, 或稱昊天, 猶人主之或稱國, 或稱乘輿」)

古代 갑골문에 의하면 殷人들은 해(日)·달(月)·별(星辰)·바람(風)·구름(雲)·무지개(虹)·산천(山川)·나무(樹林) 등 자연물을 神으로 공경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先祖들이 死後 昇天하여 神靈한 존재로 하늘에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이 자연신과 先祖神위에 우주 만물의 근원이요 주재자인 절대 존재가 있다고 믿었고, 그를 「帝」·「上」 또는 「上帝」라고 불렀다. 上帝는 풍년과 흉년, 전쟁과 승패, 生死, 吉凶禍福 등을 주관하는 초월적 절대자로 자연신과 先祖神을 臣下로 좌우에 거느리고 있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상제의 位格에 관하여 살펴보면 첫째, 上帝는 唯一無二한 至高의 神이다.<sup>16)</sup> 여기서 唯一無二하다는 말은 근원적 하나로서의 신앙의 대상을 뜻하며 철학적 신앙의 입장에서 말하는 唯一神觀과도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唯一이라는 말은 數的인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는 말은 함축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個體로서의 하나가 아닌 諸萬物과 諸神을 낳게 한 근원자이며 천하를 두루 그 속에 함유하여 살필 수 있는 統體적인 존재이다. 그리하여 上帝에게 제사지내고 공경하는 것은<sup>17)</sup> 만 천하를 두루 살피고 있음을 믿어<sup>18)</sup> 福을 기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로 上帝는 全能 全知하고 全善을 갖춘 전적으로 온전한 존재이다.

아득히 넓은 昊天은 모든 일을 튼튼히 하지 않음이 없다.<sup>19)</sup>

昊天은 밝으시어 그대와 더불어 나가다니고 계시며, 昊天은 흰하시어 그대와 더불어 놀러다니고 계시네.<sup>20)</sup>

밝게 땅 위에 계시며 빛나게 하늘에도 계시네....문왕께선 삼가고 조심하시어 上帝를 밝게 섬기고 많은 복을 누리신다.<sup>21)</sup>

즉 상제는 모든 일에 완벽하며 누가 어디를 가도 항상 곁에 있는 듯 살피

16) 이에 대한 관련 문헌으로는 다음과 같다.『中庸』 19장 「郊社之禮 所以事上帝也 宗廟之禮 所以祀乎其先也」, 『禮記』 曾子問, 「嘗禘郊社, 尊無二上」, 『論語』 泰伯 「巍巍乎, 惟天爲大」, 八佾 「獲罪於天 無所禱也」

17) 『書經』 泰誓 上 「類于上帝」, 立政 「顧俊尊上帝」, 堯典 「欽若昊天」

18) 『書經』 呂刑, 「上帝監民」

19) 『詩經』 瞻仰 「藐藐昊天 無不克鞏」

20) 『詩經』 板 「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

21) 『詩經』 大明 「明明在下, 赫赫在上...維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므로 세세한 일까지 다 알 수 있으며, 무한히 밝은 모습으로 하늘과 땅 어디에도 臨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비단 上帝가 땅위의 현실세계와 독립되어 초월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로 인간과 같이 호흡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이 진실로 섬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친근함을 지닌다.

세째로 상제는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며 사사로움이 없이 항상 義로운 일을 주관하고 있다.

皇天은 친함이 없이 오직 德있는 사람이면 이를 도우신다.<sup>22)</sup>

오직 길함과 흉함이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고 德에 따라 하늘은 재앙과 복을 내리신다.<sup>23)</sup>

한 개인의 사사로움으로서는 얼마든지 자기가 특별히 친애하는 자에게만 혜택을 베풀겠지만 상제의 베품은 특정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德의 기준에서 無私至公한 다스림을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의롭지 못한 일에는 어김없이 재앙도 내리기도 하는 가치판단의 궁극적 주체가 이기도 한 것이다.

이상의 구절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상제의 위격은 唯一無二한 至高의 神으로써 全知全能하고 至公無私하며 항상 의로운 일을 주관하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上帝의 權能

上帝의 權能이라고 하면 唯一無二의 절대자로서 지니는 그 권한과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우주의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조화주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그 길흉화복 또는 생살대권까지 지니는 절대 권력자로서의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이러한 상제의 권능을 살펴보면 첫째, 上帝는 인간의 吉凶禍福을 담당하고 있어서 善한 자에게는 福을 내리고 惡한 자에

22) 『書經』 蔡仲之命 「皇天無親 惟德是輔」

23) 『書經』 咸有一德 「惟吉凶不僭在人 惟天降災祥在德」

게는 禍를 내린다.

天의 법도는 착한 사람에게 福을 주고 나쁜 자에게는 禍를 내리시는 것이니 夏나라에 재앙을 내리시어 그 죄를 밝히신 것이다. ....上天은 아래로 백성들을 진실로 도우셔서 죄인을 내리치고 굴복시키셨다.<sup>24)</sup>

윗글에서 天이나 上天은 모두 주재격에 있는 上帝를 달리 이르는 것에 불과하다. 즉 上帝는 至公無私한 位格에서 善과 惡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어김없이 賞罰을 시행하는 심판자임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제의 판단에 의한 賞罰의 시행에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공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둘째로 상제는 우주의 자연현상을 주재하고 관령하는 분이다.

무릇 禮는 반드시 大一에 근본하며 나뉘어서는 천지가 되고 변하여서는 四時가 되며 配列하여서는 鬼神이 된다.<sup>25)</sup>

가을에 크게 곡식이 여물었는데 거뭇들이지 않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크게 벼락과 번개가 치며 바람이 불어 곡식이 모두 넘어지고 큰 나무가 뽑히어 지니 나라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임금은 대관들과 더불어 모두 예복을 갖추고서 金滕의 글을 열었다.....왕은 글을 들고 울면서 말하기를 "...지금 天은 위엄을 나타내시어 주공의 덕을 밝히셨으니..." 왕이 교외로 나가니 天은 곧 비를 내렸고 반대로 바람이 부니 곡식은 모두 일어났다.<sup>26)</sup>

윗글에서 '大一'이란 곧 唯一하면서도 주재하는 天을 말하며 이는 上帝에 다름아니다. 그리고 상제는 天地의 형상을 만들어 내고 春夏秋冬의 四時를 운행하며 수많은 神들을 거느리고 있다. 한편 고대 민족은 이러한 主宰天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숭배하고 여러가지의 제사형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는데 특히 농업사회와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는 四時에 대한 제사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계절의 각각에 대하여는 祠·禱·嘗·蒸 또는 禱·禘·嘗·蒸의 제사가 드러졌다.<sup>27)</sup> 이러한 四時의 제사는 다양한 숭배대상을 갖고 있

24) 『書經』 湯誥 「天道，福善禍淫，降災于夏，以彰厥罪....上天孚佑下民，罪人黜伏」

25) 『禮記』 禮運 「夫禮必本於大一，分而爲天地，變而爲四時，列而爲鬼神」

26) 『書經』 金滕 「秋大熱未穫，天雷電以風，禾盡偃，王與大夫盡全，以啓金滕之書....王執書以泣曰，‘..今天動威以彰周公之德...’王出郊，天乃雨，反風，禾則盡起」

27) 『爾雅』 釋天 「春祭曰祠，夏祭曰禱，秋祭曰嘗，冬祭曰蒸」, 『禮記』 祭統 「凡祭有四

지만 日月星辰의 天體와 나아가 주재적 天에로 통하고 있다. 고대 동양인에게 있어서 四時의 관념은 궁극적인 존재로서의 上帝가 顯現하는 양상의 일종인 것이다.

세째로 上帝는 인간세상의 수명까지도 관장하는 生殺大權을 지닌다.

天이 밑의 백성들을 살피실 때에는 그들의 울바름을 주로 하시어 수명을 내리심에 긴 것이 있고 길지 않은 것이 있으나 天이 백성들을 일찍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명을 끊는 것이다.<sup>28)</sup>

아아! 우리의 삶은 命이 하늘에 달려있지 아니한가.<sup>29)</sup>

윗글에서 볼 때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는 수명은 모두 주재적에 있는 上帝로부터 받은 것이며 이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라고 하겠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명을 함부로 여겨 끊는다면 이는 본래 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으로 끊어버린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상제의 뜻을 크게 받들어 德을 밝히고 훌륭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상제가 큰 명을 내려서 대업을 이루게도 할 수 있다.<sup>30)</sup> 그리하여 부패한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도 모두 상제의 명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보므로 상제는 고대 민족에게 있어서 바로 인간의 命을 주관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上帝와 諸神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 3. 諸神 및 人間과의 관계

上帝는 唯一의 至高神으로서 만인의 추앙을 받는 신앙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질 수 있다. 그러나 上帝는 너무나 높고 엄위로운 존재이므로 王이라 할 지라도 감히 직접 관계를 맺고 기원할 수 없다고 여겨 그 臣下들, 특히 先

時, 春祭曰禘, 夏祭曰禘, 秋祭曰嘗, 冬祭曰蒸,

28) 『書經』 高宗彤日 「惟天監下民, 典厥義, 降年有永有不永, 非夭夭民, 民中絕命」

29) 『書經』 商書, 西伯戡黎 「嗚呼, 我生不有命在天」

30) 『書經』 康誥, 「朕其弟, 小子封, 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慎罰, 不敢侮鰥寡, 庸庸, 祗祗, 威威, 顯民, ...聞于上帝, 帝休, 天乃大命文王, 殪戎殷, 誕受厥命」

祖神의 仲保를 통해 간접적으로 好意와 保佑를 청하였던 것이다.<sup>31)</sup> 이러한 仲保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자연현상에 속하는 諸神과 인간의 祖上神이 또하나의 신앙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것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이 곧 상제의 현현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곧 天體 자연현상과 제신들에 대한 신앙으로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하여 日·月·星·辰의 神은 상제와 더불어 天上에 住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晝夜, 寒暑, 四時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보는 것이다. 郊祭는 天에 대한 제사이나 日과 月의 제사로서 시행되기도 한다.<sup>32)</sup> 日月星辰에 드렸던 제사로서 王宮·夜明·幽宗 및 布가 있고 柴祭와 禋祭등의 명칭이 있다.<sup>33)</sup> 그러나 상제 및 天에 대한 신앙과 日·月·星·辰의 천체에 대한 신앙은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엄연히 上帝는 主宰格으로서 임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다른 諸神들은 그 主宰하는 上帝의 命에 따라 움직이는 臣下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兩者의 관계를 상하위로 배열한 것은 후기의 합리적 사고를 통하여 일어난 것이며 발생시기에서는 개별적 신앙내용을 가졌었다.<sup>34)</sup> 日月星辰의 천체뿐만이 아니라 春夏秋冬의 四時, 風雨霜雪도 제사의 대상이 되며 이 또한 日月星辰의 천체와 더불어 나아가 上帝天에로 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風雨등은 상제의 현현방식으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풍우를 주관하는 神이 곧 신앙의 대상이 된다. 風神으로 風師가 있으며 風에 대한 제사로 磔祭가 있다.<sup>35)</sup> 雨의 神은 雨師 또는 萍羿이며<sup>36)</sup> 檉燎祭는 風神, 雨神에게 드려졌던 제사이다.<sup>37)</sup>

한편 『周禮』에는 제사대상에 대하여 크게 天神·地祇·人鬼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sup>38)</sup> 여기서 天神을 上帝로 보고 地祇를 風雨霜雪등의 자연현상과 토지 곡식등 지상의 神으로 본다면 人鬼는 곧 祖上神이 되는 것이다. 인간

31) 崔基福, 上揭論文 p.204

32) 『禮記』 祭儀 「郊之祭大報天 而主日配以月」

33) 『周禮』 大宗伯之職 「以實柴祀日月星辰」 『書經』 舜典 「禋于六宗」 『禮記』 祭法 「王宮祭日也, 夜明祭月也, 幽宗祭星也」

34) 琴章泰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1994, p.187

35) 『爾雅』 釋天 「祭風曰磔」

36) 『屈原』 楚辭, 天問 「萍號起雨」

37) 『周禮』, 大宗伯 「以檉燎, 祀司中司命觀風師雨師」

38) 『周禮』 大宗伯 「大宗伯之職, 掌建邦之天神人鬼地示之禮, 以佐王建保邦國」.

존재는 天地 가운데 태어나 만물의 靈長으로 뽑혔으나 이러한 인간의 근원에는 천지와 先祖와 君師가 있음으로 인간의 현존재가 가능하게 된다.<sup>39)</sup> 조상숭배는 생명의 근원을 경건히 하여 자신의 생명을 聖化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sup>40)</sup> 그리고 근원에 대한 숭배는 天의 숭배에로 연결되며 祖上은 上帝에로의 통로가 된다는데 더욱 의의가 있다.<sup>41)</sup> 祖上은 天에 상제와 함께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조상은 상제의 명을 받아 인간에게 복과 재앙을 내려주기도 하며 후손의 뜻을 상제에게 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조상에 제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제에게 福을 청할 수 있는 것이다. 고대 중국인에게 있어서 조상숭배는 상제의 中保者로서의 조상숭배의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sup>42)</sup>

이상과 같은 구조에서 볼 때 上帝와 諸神과의 관계는 먼저 最高位에 위치하는 상제가 있으며 그 밑에 수많은 群神들이 각자 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하나의 엄밀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속에서 신앙되어지는 상제는 비단 여러 群神들과 독립되어 개체적으로 구분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며 모두 상제의 命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여러 群神들과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顯現될 수 있는 無形無像의 존재인 것이다.

상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의 당위성과 그 근거를 제공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至公無私한 상제의 뜻을 받들어 이를 인간사회에서 시행하도록 준칙화한 것이 바로 윤리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윤리도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唯一無二성을 지니고 온전한 본체를 갖춘 상제에게로 근거지우는 것이 가장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고대 민족은 윤리적 실천의 올바른 판단기준이 모두 상제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았으며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서 의례절차를 만들었던 것이다. 聖人은 바로 이러한 상제의 절대성을 파악하고 그 뜻을 인간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다. 聖人·賢人·大人·君子로 표현되는 인

39) 琴章泰, 上書 p.196

40) 『禮記』 祭義 「君子反古復始, 不忘其所由生也」 琴章泰·上書 p.196 재인용

41) 『孝經』 「子曰, 天地之性人爲貴, 人之行莫大於孝, 孝莫大於嚴父, 嚴父莫大於配天」 琴章泰 上書 p.196 재인용

42) 琴章泰 上書 p.197

격은 그 德이 천지와 합치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하겠다.<sup>43)</sup> 동양고전에는 上帝가 인간사회에 대해 이러한 윤리도덕적 측면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天의 질서에 법이 있어 우리에게 다섯가지 법(五倫)을 삼가 지키도록 하셨으며...天의 등급에는 禮가 있어 우리에게 다섯가지 등급의 禮를 좇게 하셨으며.....天이 명하심에 德이 있으시니 다섯가지 옷으로 다섯가지 등급을 밝히도록 하십시오. 天이 특별하심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다섯가지 형벌을 다섯가지로 쓰십시오<sup>44)</sup>

皇上帝께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올바른을 내리시어 언제나 올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을 따르도록 하셨으니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다면 임금노릇을 제대로 할 것이다.<sup>45)</sup>

天이 물 백성들을 낳으시니 사물이 있음에 법칙이 있다. 백성들이 떳떳한 덕을 지니고 있으니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네.<sup>46)</sup>

윗글에서 天 또는 上帝는 인간에게 도덕적 질서를 부여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인간사회의 모든 예법을 제정할 수 있는 가치기준이 된다. 그리하여 三綱五倫이나 五禮를 세워서 시행하는 것은 모두 上帝의 뜻을 체계화하여 따르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제의 뜻을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에 이미 상제께서 명하신 내용을 담고 태어났다는 것이며 그 성품에 부여된 내면의 떳떳한 덕을 발견하여 이를 외부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상제의 뜻과 합치되는 것이라 본다. 이 말은 상제의 唯一的이며 超越的인 성격을 다시 끌어내려 인간내면의 세계에서도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며, 이는 한편으로 상제와 인간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질 수 있는 합리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43) 『周易』 乾卦, 文言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44) 『書經』 皋陶謨 「天敍有典, 勅我五典,..天秩有禮, 自我五禮..天命有德, 五服五章哉, 天討有罪, 五刑, 五用哉」

45) 『書經』 湯誥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 惟后」

46) 『詩經』 烝民 「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

이상에서 살펴본 上帝觀은 神的 存在로서의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기 이전의 상제신앙의 내용이다. 즉 유일무이한 최고신으로서의 상제는 절대권능과 온전한 본체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위격에서 상제는 만 천하를 두루 굽어 살피며 관감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게 되는 배경과 그 후의 役事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Ⅲ. 上帝의 人身降世

唯一無二한 위격과 절대권능을 지니는 신적 존재로서의 상제는 인류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그 급박한 우주사적 현실에 임하여 마침내 인신으로 강세하게 되는 대역사가 발생하게 된다. 대순상제관이 지니는 특수성도 바로 이러한 상제의 人身降世에 있다 하겠다. 그러면 먼저 상제의 인신강세가 이루어진 배경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 1. 降世의 背景

##### (1) 人尊時代의 到來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게 되는 주요한 배경의 하나로서 인존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다. 여기서 ‘人尊’이라는 말은 ‘人本’ ‘人道’와는 그 개념을 달리 하는 것으로 신적 존재와 동일한 위격으로서의 인간을 나타내는 말로 해석되어 질 수 있다. 다시말해서 이때까지 우주역사의 주체를 담당해왔던 초월적인 대상이 절대 권위를 지니고 인간 사물위에 군림해오면서 인간도 이를 숭상하고 신앙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면, 이제 그 숭상의 대상이 인간존재로 전환되어 인간이 절대권위를 지니고 우주역사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새로운 인간출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sup>47)</sup>

즉 ‘天尊’과 ‘地尊’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天地가 절대권위를 지녀오던 숭상의 대상이었으며 또한 인간만물위에 군림하는 根源者였다는 말이다. 여기서 ‘尊’자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단순히 ‘존귀하다’는 뜻보다는 무형의 초월적 권위를 지니면서 한편으로 제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하나의 신적 존재를 내포하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sup>48)</sup> 말하자면 신적 존재가 하늘(天)이

47)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1989, 교법 2장 56절



라고 하는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절대권위를 행사해 왔던 시대가 天尊時代였으며, 반대로 신적 존재가 땅(地)의 영역에서 머문다면 이는 地尊時代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인존시대라’고 한 것은 신적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집에 머무르면서 인간과 더불어 그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이니 그 의의가 각별히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그 숭상의 대상도 天·地에서 인간으로 전환되었음을 알고 나아가 이때까지 天·地가 담당해왔던 우주역사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 가야 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人尊’이 가능한 근거는 다름아닌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라는 본체의 위대성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음(心)’이란 곧 ‘신명이 머무는 집’으로서 그 속에는 이를 간직하고 수양해 나가서 이룩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의 위상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된 전경의 구절을 살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이 드나드는 추기이며 문호이며 도로이다. 추기를 열고 닫고 문을 들락날락하며 길을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신이다. 혹은 선한 것도 있고 혹은 악한 것도 있으니 선한 것은 스승으로 삼고 악한 것은 고쳐서 쓰게 되니 내 마음의 추기와 문호와 도로는 천지보다도 크다.<sup>49)</sup>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으며 사람을 쓰게 되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sup>50)</sup>

라고 하여 인간의 마음이야말로 신과 인간이 합치되는 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잘 다스려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천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주의 본체가 되어 ‘천지가 사람을 쓴다’고 할 수 있는 우주역사의 주

48) ‘尊’字의 字形을 고대 갑골문에서 살펴보면 𠂇로서 본래의 뜻은 「술그릇, 또는 고대에 제사지낼 때 쓰던 그릇」이다. 고문의 자형은 두 손으로 술 향아리를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데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존경하다」, 「존귀하다」, 「존중하다」 등의 뜻을 갖게 되었다.(이낙의 『漢字正解』 4권, p.765참조) 따라서 하나의 제사의 대상은 신적인 존재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을 섬기는 마음으로 술을 바친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49) 『典經』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或有善或有惡 善者師之惡者改之 吾心之樞機門戶道路大於天地」

50) 『典經』 교법3장47절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체로 등장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天地가 담당한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고 나아가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어지는 그야말로 진정한 인간존중의 시대를 예견한다고도 하겠다. 그리하여 인간존재는 天地가 지녀왔던 절대권위 이상으로 그 숭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이룩되는 인존시대에 처하여 신적존재로만 있던 상제께서는 새로운 우주역사의 주체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先天의 현실과 廣救天下의 使命

상제의 인신강세의 배경과 관련하여 또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先天'이라고 하는 현실의 위기적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은 오직 절대권능을 지니는 상제가 아니시면 구제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지경임을 나타내고 있어 곧 상제의 강세를 이루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즉 『典經』에서 살펴보면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51)

라고 하고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52)

라고 하여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상황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때 혼란한 천지를 바로 잡고 相生의 道로써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權能者인 상제의 강세를 필요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典經』을 살펴보자.

51) 『典經』 공사 1장3절

52) 『典經』 교법 1장1절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sup>53)</sup>

상제께서 九천에 계시자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三十년을 지내시면서 최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sup>54)</sup>

즉 오늘날은 문명사회로서 물질만능주의에 입각한 고도성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배후에는 인간정신의 타락과 윤리도덕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가 도사리고 있으며 급기야는 인간 스스로 자멸의 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전경에서는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졌다’고 하여 오늘날의 상황을 단적으로 진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 인류 뿐만 아니라 신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쳐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공통의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적인 세계에서는 같은 부류의 존재들이 모이는 회집에 의하여 이러한 현실구제를 위해서는 오직 상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임을 천명하게 되었으며, 이는 마침내 절대권능의 소유자이신 구천의 상제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방책을 행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상제께서 강세하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그 강세의 역

53) 『典經』 교운 1장 9절

54) 『典經』 예시 1절

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전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날의 인류가 처한 선천이라고 하는 현실이 인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하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널리 구제할 수 있는 권능의 소유자로서 상제가 강세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상제의 人身降世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 2. 降世와 그 役事

### (1) 上帝의 人身降世

#### 1) 성씨, 존호, 탄강일, 탄강지

상제의 인신강세는 상제로 하여금 인간의 성씨를 지니게 하고 그 이름과 더불어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게 하였다. 이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제를 역사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며 어떤 추상적인 실재를 막연하게 논의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주요한 사항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씨와 존호 그리고 탄강일에 대해서는

객망리에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六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탄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姜)씨시오. 존휘는 일순(一淳)이고 자함은 사옥(士玉)이시고 존호는 증산(甞山)이시니라. 때는 신미(辛未)년 九월 十九일인 즉 이조 고종(李朝高宗) 八년이며 단기로서는 四千二百四년이고 서기로는 一千八百七十一年 十一月 一일이로다.<sup>55)</sup>

라고 하였으며, 탄강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탄강하신 마을을 손바래기라고 부르며 당시에 전라북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全羅北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井邑郡德川面新月里) 새터로 고쳐 부르도다.<sup>56)</sup>

라고 하여 각각 인간의 성씨와 존호 그리고 탄강일과 탄강지를 명시하고 있다. 즉 서기 1871년 신미년 음력 9월19일에 강세하였으며 姜씨 성에 존호

55) 『典經』 행록 1장 5절

56) 『典經』 행록 1장 6절

가 甌山인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상제께서 인간의 성씨 중 특히 姜氏로 오게 되었다는 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세상에 성으로는 풍(風)성이 먼저 있었으나 전하여 오지 못하고 다만 풍채(風采)·풍신(風身)·풍골(風骨)등으로 몸의 생김새의 칭호만으로 남아올 뿐이오. 그 다음은 강(姜)성이 나왔으니 곧 성의 원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개벽시대를 당하여 원신반본이 되므로 강(姜)성이 일을 맡게 되었나니라」 하셨도다.<sup>57)</sup>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상제께서 강세하게 되는 시기는 ‘개벽시대’라고 하는 우주사의 일대전환기에 해당하며 이는 다른 말로 원래의 참된 근본의 세상을 회복하는 ‘원신반본’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상징적 의미로서 근본의 성씨를 지니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시작과 끝을 주도하는 근원자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될 때 현재 남아 있는 인류 태초의 성씨를 취하게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존호를 甌山이라고 칭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甌’이란 떡을 지는 시루에 해당되며 山이란 고정 불변의 진리를 상징하는 사물로 일컬어 진다. 이때 ‘시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 하나의 낱개의 쌀알이 떡을 찌므로써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릇이니 그 상징적 의미는 모든 분열된 족속과 문명 그리고 사상을 한데 모아 하나로 귀일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典經』구절을 살펴보면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문화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문명의 기초를 정하셨도다.<sup>58)</sup>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

57) 『典經』행록 4장 17절

58) 『典經』교법 3장23절

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을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sup>59)</sup>

에서 알 수 있듯이 이후 개혁시대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이며 이때는 어떠한 사상간의 갈등도 또는 문화 문명간의 대립도 없는 그 정수가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세계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대를 주도하는 상제의 강세에서 존호가운데 ‘시루 甌’자를 쓰는 것은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는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으면서 행한 그 권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 權能

상제의 권능이라 함은 상제께서 인간의 몸을 지니고 있으면서 행한 권한과 능력을 말한다. 이에 대한 탐구는 주로 인간적 존재로서의 상제가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신적존재로서의 상제의 권능과 비교하여 서로 상통하는 측면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는 상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임을 밝혀 강세하신 강증산이 바로 절대권능의 소유자이신 상제이심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앞서 살펴본 신적 존재로서의 상제관을 상기해보면 주로 상제의 권능이라고 여겨지는 주요 항목을 몇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命을 주관하고, 길흉화복을 담당하며, 자연현상을 주재한다는 점등인데 이러한 권능을 모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제께서 행할 수 있었음을 전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命을 주관함

그후 어느날 금곡이 상제를 정중하게 시좌하더니 상제께 저의 일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였도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대는 전생이 월광대사(月光大師)인 바 그 후신으로서 대원사에 오게 되었느니라. 그대가 할 일은 이 절을 중수하는 것이고 내가 그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

59) 『典經』 예시 30절

리니 九十세가 넘어서 입적하리라」 하시니라.<sup>60)</sup>

상제께서 동곡에 머무실 때 그 동리의 주막집 주인 김 사명(金士明)은 그의 아들 성옥(成玉)이 급병으로 죽은 것을 한나절이 넘도록 살리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도저히 살 가망이 보이지 않자 아이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업고 동곡 약방으로 찾아 왔도다. 상제께서 미리 아시고 「약방의 운이 비색하여 죽은 자를 업고 오는도다」 고 말씀하시니라. 성옥의 모는 시체를 상제 앞에 눕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주시기를 애원하므로 상제께서 웃으시며 죽은 아이를 무릎 위에 눕히고 배를 밀어내리시며 허공을 향하여 「미수(眉手)를 시켜 우암(尤菴)을 불러라」 고 외치고 침을 흘려 죽은 아이의 입에 넣어주시니 그 아이는 곧 항문으로부터 시추물을 쏟고 소리를 치며 깨어나니라. 그리고 그 아이는 미음을 받아마시고 나서 걸어서 제 집으로 돌아가니라.<sup>61)</sup>

금산사 청련암(靑蓮庵)의 중 김 현찬(金玄贊)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 고 이르셨도다. 그후 그는 환속하여 화축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 병욱(金秉旭)이 또한 명당을 바라므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 고 말씀하셨도다. 그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 고 여주니 상제께서 「네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 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골이장지(埋白骨而葬之)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골이장지(不埋白骨而葬之)니라」 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뵈옵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라므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받음되었나니라」 고 말씀이 계셨도다.<sup>62)</sup>

윗 구절은 상제께서 한 개인의 수명을 관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태워주기도 하는 권능을 보여 주며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불잡음이 옳으니 대신문(大神門)을 열어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 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도다.<sup>63)</sup>

상제께서 어느날 가라사대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60) 『典經』 행록 2장 13절

61) 『典經』 제생 1장 9절

62) 『典經』 행록 1장 37절

63) 『典經』 예시 1장 24절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시 천하 통일지기(一時天下統一之氣)와 일월대명지기(日月大明之氣)를 붙여 주어서 역사케 하고자 하나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인(仁)이니라. 만일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가 다 저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인자를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잘 지킬지어다」고 이르고 「너희들은 편한 사람이 될 것이오. 저희들은 일만 할뿐이니 모든 일을 밝게 하여 주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갈 때에 품 샅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리니 말대접이나 후덕하게 하라」 하셨도다.<sup>64)</sup>

라고 하여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관장하는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命을 주관한다는 것이 오로지 상제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임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 ② 길흉화복을 주관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sup>65)</sup>

금구 수류면 평목점(金溝水流面坪木店)에서 정 괴산(丁槐山)이라는 자가 집안이 가난하여 주막의 술장사로 겨우 호구하면서 매양 상제를 지성껏 공양하더니 상제께서 어느날 우연히 주막에 들렀을 때 괴산이 상제께 올리려고 개장국을 질술에 끓이다가 질술이 깨어지므로 그의 아내가 낙담하여 울고 섰거늘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셔서 쇠술 하나를 갖다 주었더니 이로부터 그의 가세가 날로 늘어났도다. 그 후에 그가 태인 방교(泰仁方橋)에로 이사하게 되자 그 쇠술을 수류면 환평리(環坪里) 정 동조(鄭東朝)에게 팔았더니 이로부터 괴산은 다시 가난하게 되고 정 동조는 도리어 살림이 일어나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술을 복술이라 불렀도다.<sup>66)</sup>

상제께서 이 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韓山)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좃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64) 『典經』 공사 2장 4절

65) 『典經』 교법 2장 4절

66) 『典經』 행록 3장 19절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다고 대답하더라」 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오.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쾌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 고 하셨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sup>67)</sup>

여기서는 앞서 말한 신적존재로서의 상제가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화를 주는(福善禍淫) 가치 판단의 주체로서 인식되어졌으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제의 권능에도 그대로 구현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구절이라 하겠다.

### ③ 자연현상을 주재

상제께서 삼계의 대권(三界·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 비를 걷히게 하시려면 중도들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상설·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sup>68)</sup>

상제께서 청도원(淸道院)에서 동곡에 돌아와 계시던 어느날 「풍·운·우·로·상·설·뇌·전(風雲雨露霜雪雷電)을 이루기는 쉬우나 오직 눈이 내린 뒤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린 뒤에 서리를 오게 하기는 천지의 조화로써도 어려운 법이라」 말씀하시고 다시 「내가 오늘 밤에 이와 같이 행하리라」 이르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과연 눈이 내린 뒤에 비가 오고 비가 개이자 서리가 내렸도다.<sup>69)</sup>

상제께서 정미년 가을 어느날 신 원일과 박 공우와 그외 몇 사람을 데리고 태인 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뢰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집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뢰가 일어나는 쪽을 향

67) 『典經』 행록 3장 36절

68) 『典經』 공사 1장 4절

69) 『典經』 권지 1장 22절

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이 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좇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때마다 하는 그 식고(食告)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쭙기를 「평생의 소원이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느님 뵈어지소서」라는 발원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sup>70)</sup>

상제께서 와룡리 황 응종의 집에 계실 때 어느날 담뱃대를 들어 태양을 향하여 돌리시면 구름이 해를 가리기도 하고 걷히기도 하여 구름을 자유 자재로 좌우하셨도다.<sup>71)</sup>

여기서는 人身으로서의 상제의 권능이 또한 자연현상을 주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④ 觀鑑萬天합

관감만천한다 함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만사를 두루 살필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와 관련된 전경 구절을 살펴보면

오월이 되어 상제께서 본택을 떠나셨으나 가신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도다. 그리하여 매우 염려하는 상제의 부친을 보고 유 덕안(俞德安)은 대신하여 상제를 찾으려고 의관을 갖추고 객망리를 떠났도다. 그가 태인(泰仁) 강심리에 이르렀을 때 관군은 의병 두 사람을 잡고 덕안을 동학군으로 몰고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 고개 임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두 사람이 먼저 참형되고 덕안의 차례가 되었을 찰나에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천둥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지라. 관군들은 지레 겁을 먹고 도망하였으나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밤은 깊어 사방이 보이지 않아 덕안이 정신을 차리니 두 사람의 시체만이 짙은 어둠 속에 뒹굴어 있었도다. 무서움에 쫓겨 그는 먼 곳에서 비치는 등불을 향하여 지친 몸을 이끌어가니 날이 새기 시작하니라. 등불은 간데 없는데 없는 산중이었도다. 그제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포박을 풀고 재

70) 『典經』 교운 1장 25절

71) 『典經』 권지 2장 11절

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왔느니라. 그는 이 재생의 인도를 호랑이가 불빛을 비쳐 준 것으로 믿었도다. 얼마 후 상제께서 객망리에 홀연히 돌아오셨도다. 상제께서 덕안을 보시고 「힘한 시국에 위급한 환경을 당하여 고통이 많았도다」 말씀하며 위로 하시니 그는 더욱 자신의 재생을 상제의 덕화라고 굳게 믿으며 재생의 감격을 되새기니라. 당시는 가릴사이 없이 마구 죽이는 판국이었던도다.<sup>72)</sup>

황 응종의 아들이 병으로 위급하게 되었기에 응종이 청수를 떠놓고 멀리 상제가 계신 곳을 향하여 구하여 주실 것을 두 손을 모아 발원하였더니 아들의 병세가 나으니라. 이튿날 응종의 동곡 약방으로 가서 상제께 배알하니 가라사대 「내가 어제 구름 속에서 내려다 보니 네가 손을 모으고 있었으니 무슨 연고이냐」 고 물으시므로 응종이 사유를 자세히 아뢰었더니 상제께서 웃으셨도다.<sup>73)</sup>

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신적 존재로서만이 가능하다고 여겼던 초월적이면서 全知的인 권능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상제에게서도 그대로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人身降世하신 상제의 주요 권능은 신적존재로서의 상제의 권능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육체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으로 인해 누구나 상제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2) 大役事로서의 天地公事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여 행하신 役事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이는 상제의 권능을 가지고 위기상황에 놓여진 선천의 현실을 구하고 나아가 인류에게 무한한 선경의 낙원을 건설해 주고자 하는 상제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천지공사의 대체를 말한다면 이는 다른 말로 개혁공사라고도 하며 천지를 뜯어고치거나 원을 풀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서로 다른 것끼리 조화시키는 것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상제의 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단행배경과 그 개요에 대하여 단적으

72) 『典經』 행록 1장 26절

73) 『典經』 권지 2장 12절

로 살펴볼 수 있는 전경구절을 들면 다음과 같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sup>74)</sup>

윗 글을 살펴볼 때 천지공사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 선천의 현실을 널리 구하기 위한 구제의 역사이며 인류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가져다 주기 위한 설계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방법론으로서는 먼저 신도(神道)로부터의 정리작업이 선행되고 이것을 기틀로 하여 저절로 인사가 이룩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天·地·人 三界에 두루 미치는 新天地의 창조 역사가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말하기를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 <sup>75)</sup>

또 가라사대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에서는 불을 때지 않고서도 밥을 지을 것이고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서도 농사를 지을 것이며 도인의 집집마다 등대 한 개씩 세워지리니 온 동리가 햇빛과 같이 밝아지리라. 전등은 그 표본에 지나지 않도다. 문고리나 옷걸이도 황금으로 만들어

74) 『典經』 공사 1장 3절

75) 『典經』 공사 1장 2절

질 것이고 금 당해를 신으리라。」 하셨도다.<sup>76)</sup>

또 상제께서 가라사대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하셨도다.<sup>77)</sup>

라고 하여 이 천지공사는 오직 상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누구의 모방도 아닌 독창적인 것임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천지공사로 인해 인류는 다시는 반목과 쟁투가 없는 무한한 선경의 세계를 맞이하게 됨을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상제께서 강세하게 되는 배경과 관련하여 광구천하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인류에게 무한한 이상세계를 베풀어 주게 되는 것은 곧 상제가 인간의 몸으로 있으면서 행한 大役事에 해당되는 것이다.

### 3. 上帝 人身降世의 意義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강세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신앙적 측면에서 그 의의를 부여한다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각 종교에서 상정하고 있는 절대자의 존재가 강세하신 상제에 의해 궁극적으로 한 분에 귀결된다는 점이며, 둘째는 인존의 의미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보이셨다는 점, 그리고 세째로 인간 모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교법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적 절대자의 현실적 귀일에 대해서는 전경에 「동학 신자는 최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의 스승이라 따르리라」(예시79)고 하여 각각의 종교에서 상정하고 있는 한분의 절대자가 바로 상제의 인신강세로 인해 구체화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즉 지역적 문화

76) 『典經』 공사 1장 31절

77) 『典經』 공사 3장 5절

적 차이에 따라 절대자에 대한 호칭은 각각 틀리다 할 지라도 그 존재마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다르지 않은 유일자로서의 상제가 절대 권능을 가지고 강제함으로 인해 모든 종교의 궁극적 귀일이 이루어 지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에 나타난 상제 자신의 위격에 대한 언표를 살펴보면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할 때 마치고 신축(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렛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벼를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 하였도다.<sup>78)</sup>

그리고 상제께서 어느날에 가라사대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金山寺) 미륵전(彌勒殿) 육장금신(六丈金神)은 여의주를 손에 받았으며 나는 입에 물었노라」 고 하셨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아래 입술을 내어보이시니 거기에 붉은 점이 있고 상제의 용안은 금산사의 미륵금신과 흡사하시며 양미간에 둥근 백호주(白毫珠)가 있고 왼 손바닥에 임(壬)자와 오른 손바닥에 무(戊)자가 있음을 종도들이 보았도다.<sup>79)</sup>

상제께서 정미년 가을 어느날 신 원일과 박 공우와 그외 몇 사람을 데리고 태인 살포정 주막에 오셔서 쉬시는데 갑자기 우뢰와 번개가 크게 일어나 칩에 범하려 하기에 상제께서 번개와 우뢰가 일어나는 쪽을 향하여 꾸짖으시니 곧 멈추는지라. 이 때 공우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번개를 부르시며 또 때로는 꾸짖어 물리치기도 하시니 천지조화를 마음대로 하시는 상제시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분을 좇을 것이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였더니 어느날 공우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날 사람 만났으니」 라는 가사를 아느냐 하시고 「이제부터 네가 때마다 하는 그 식고(食告)를 나에게 돌리라」 하시니 공우가 감탄하여 여쭙기를 「평생의 소원이라. 깨달았나이다.」 원래 공우는 동학신도들의 식고와는 달리 「하느님 뵈어지소서」 라는 발원의 식고를 하였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남의 심경을 통찰하심이며 조화를 임의로 행하심을 볼 때 하느님의 강림이시라고 상제를 지성으로 받들기를 결심하였도다.<sup>80)</sup>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

78) 『典經』 공사 1장 1절

79) 『典經』 행록 2장 16절

80) 『典經』 교운 1장 25절

(大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大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sup>81)</sup>

라고 하여 ‘개벽장’, ‘상제’ ‘미륵’, ‘하느님’, ‘대선생’과 같은 호칭은 모두 다른 존재가 아닌 한분의 상제를 두고 일컫는 것이며 단지 그 문화적 차이에 따른 호칭의 구분만 있을 뿐 존재의 차이는 둘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人尊의 실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인존’의 의미가 단순히 ‘人道’나 ‘人本’의 의미와는 달리 하나의 신적존재와 같은 숭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신적인 존재가 天地에만 있어서 숭상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신적 존재를 거느리고 다스려 나가는 절대권위의 소유자가 인간이 됨을 뜻하고 있다. 그리하여 누구나가 다 이러한 인존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대를 일컬어 인존시대라고 하였으며 인신으로 강세한 상제께서는 이러한 인존이심을 그 권능을 통해 선도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전경에 보면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에 신명을 모으고 흠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참관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참관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 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께서 자신을 좇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sup>82)</sup>

라고 하여 인신강세의 상제는 천지공사를 단행하면서 신명을 자유자재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몸으로서 그 권능이 신적인 존재들을 자유자재로 이끄는 것을 보면 이미 인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째로 교법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이 교법은 상제께서 인간의 몸으로 있으므로 해서 가능한 것이며 상제를 모시고 신앙하는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 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부터 역사적인 일 그리고 규범적인 일까지 다양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전경

81) 『典經』 권지 1장 11절

82) 『典經』 교운 1장 8절

의 교법편에 주로 설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내용이라 할 지라도 그 강조하는 요지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인간의 ‘一心’을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심이란 바로 다름아닌 상제를 신앙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변함없는 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전경을 보면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했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sup>83)</sup>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sup>84)</sup>

내가 비록 서촉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 없이 찾으리라.<sup>85)</sup>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해 선달 어느날 백지에 이십 사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 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良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二十四 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 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도다.<sup>86)</sup>

고 하여 상제의 권능으로 행한 모든 대역사는 오직 일심을 가진 자에게만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행록5-25)고 한 것은 상제의 역사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열석자가 최수운이 처음 상제로 부터 받은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의 글이라면 이는 다름아닌 상제신앙에 대한 변치 않는 일심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83) 『典經』 교법 2장 4절

84) 『典經』 교법 2장 5절

85) 『典經』 교법 2장 13절

86) 『典經』 예시 50절



볼 수 있다. 상제의 교법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대체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상제께서 인신으로 강제한 부분에 대한 상제관의 개요를 살펴보았으며 남은 과제로는 상제의 화천 이후에 발생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정립문제와 이에 따른 상제관을 검토하는 것이다.

## IV. 上帝의 化天과 教運

상제의 化天이란 절대권능을 지니고 강제한 상제께서 그 광구천하의 역사를 다 마치고 다시 본래의 神界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인류가 처한 진멸의 위기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강제하였고 그 구제방안을 정립함과 동시에 무한한 仙境의 이상을 제시한 역사적 사실은 그 化天에 따른 신앙의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상제의 化天이 가져다 주는 의의를 되새겨보고 이후 올바른 신앙의 체계가 정립되어 나가는 과정을 教運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上帝 化天의 意義

#### (1) 天地公事の 確定

人身으로 강제한 상제께서는 1871년 신미년부터 1909년 기유년까지 39세의 壽를 지내고 化天을 행하게 된다. 이 때의 상황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 일순 호남서신 사명(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 때에 신 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하노라」 하셨도다.<sup>87)</sup>

87) 『典經』 행록 5장 33절

상제께서 수박에 소주를 넣어서 우물에 담구었다가 가져오게 하셨도다. 그 수박을 앞에 놓고 가라사대 「내가 이 수박을 먹으면 곧 죽으리라. 죽은 후에도 묶지도 말고 널속에 그대로 넣어두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약방 대청에 앉아 형렬에게 꿀물 한 그릇을 청하여 마시고 형렬에게 기대어 가는 소리로 태을주를 읽고 누우시니라. 이날 몹시 무더워 형렬과 종도들이 모두 뒤 대밭가에 나가 있었도다. 응종이 상제께서 계신 방이 너무 조용하기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 방을 들여다 보니 상제께서 조용히 누워 계시는데 가까이 가서 자기의 뺨을 상제의 용안에 대어보니 이미 싸늘히 화천(化天)하신지라. 응종이 놀라서 급히 화천하심을 소리치니 나갔던 종도들이 황급히 달려와서 상제의 돌아가심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리오 하며 탄식하니라. 갑자기 문계 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화천하신 지봉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하는도다. 때는 단기 四천 二백 四십 二년 이조 순종 융희 三年 기유 六月 二十四日 신축 사시이고 서기로는 一九〇九年 八月 九일이었도다.<sup>88)</sup>

윗 글을 보면 상제는 人身으로서 해야 할 인간계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후 천하사를 도모하기 위한 또 다른 차원으로의 轉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는 곧 ‘化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계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구체적인 시기는 윗 글에 나타나 있듯이 1909년 기유년 음력 6월 24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化天의 사실에서 볼 때 이는 무엇보다 人身으로서의 상제의 사명을 다한 것이며 그 사명은 다름아닌 ‘천지공사’라고 하는 대역사를 확정지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천지공사의 종결시기가 바로 상제의 화천시기인 것이다. 여기서 천지공사의 시작과 끝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천지공사는 1901년 辛丑年부터 1909년 己酉年까지 행해진 것으로서 상제가 인신으로 강세하여 행한 大役事에 해당된다. 『典經』을 보면 이러한 천지공사의 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절을 살펴볼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종도들에게 「내가 이 공사를 맡고자 함이 아니니라.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 되었노라」 고 말씀하셨도다.<sup>89)</sup>

88) 『典經』 행록 5장 35절

89) 『典經』 공사 1장 9절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나. 상제께서 대원사에서 공부부를 마치신 신축(辛丑)년 겨울에 창문에 종이를 바르지 않고 부엌에 불을 지피지 않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음식을 전폐하고 아흐렛동안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도다. 이 동안에 뜰에 벼를 말려도 새가 날아들지 못하고 사람들이 집 앞으로 통행하기를 어려워 하였도다.<sup>90)</sup>

여기서 볼 때 혼란한 천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제의 천지공사가 필요했던 것이며 이는 상제 自意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직 천지신명의 '하소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시작된 천지공사는 총 9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다 마쳐진 해에 상제는 人身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전경에서 보면

상제께서 六月 어느날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布教五十年工夫終畢)」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윤(伊尹)이 오십이 지 사십 구년지비(五十而知四十九年之非)를 깨닫고 성탕(成湯)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나니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샬틈 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하셨도다.<sup>91)</sup>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九년간 행하여 온 개벽공사를 천지에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참관하고 확증을 마음에 굳게 새겨두라. 천리는 말이 없으니 뇌성과 지진으로 표명하리라.」 상제께서 모든 종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별안간 천둥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sup>92)</sup>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천지공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벽공사로서 상제가 짜 놓은 물 샬틈 없는 도수에 해당되며 상제의 화천 이후에도 계속 전개되어 나가는 역사의 설계와도 같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는 상제의 권능으로써 천지에 확증되었으며 그것이 종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人身降世는 천지공사의 종결과 더불어 그 사명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며 '化天'은 이러한 대역사의 단계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90) 『典經』 공사 1장 1절

91) 『典經』 공사 3장 37절

92) 『典經』 공사 3장 38절

## (2) 道通의 傳授

상제의 化天이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의의는 ‘道通’이라고 하는 경지를 후세의 인류에게 전수해준다는데 있다. 이 때 도통이라 함은 기이한 일이나 異蹟을 행하고 자연의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는 신통력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전경에서 보면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sup>93)</sup>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sup>94)</sup>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종교가 저마다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 이것이 한데 모여서 총체적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개혁의 시대에 주어지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 성숙의 경지를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상제在世時에 이러한 경지가 있을 것을 종도들을 통해 암시하였으며 이를 기대하고 추종했던 사람들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이라고 말씀하셨도다.<sup>95)</sup>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성(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

93) 『典經』 예시 80절

94) 『典經』 예시 81절

95) 『典經』 예시 45절

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sup>96)</sup>

무신년 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려라」 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sup>97)</sup>

윗 글에서 보면 도통은 상제의 권능으로 천지공사의 설계에 따라 만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人身의 상제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도통은 ‘이후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고 하였듯이 개개인이 스스로의 수행을 거친 후에 받게 되는 최종적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수행은 상제의 천지공사가 확정된 이후에 전개되는 순차적인 문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경에서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sup>98)</sup>

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종통 계승을 통해 이루어지는 수행의 방법이 있으며 이로써 상제의 화천은 곧 도통을 받기 위한 수행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제의 화천을 암시하는 다음의 전경구절은 공사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나타내준다.

96) 『典經』 교운 1장 33절

97) 『典經』 공사 2장 27절

98) 『典經』 교운 1장 41절

김 광찬(金光贊)이 어느날 개벽 공사가 속히 결정되지 않음으로 모든 일에 불평을 털어놓고 「나는 자살하겠노라」고 말하여 좌석을 흐리게 하니라. 상제께서 좌중을 보시고 「모든 일에 때가 있나니 마음을 돌려 어리석음을 벗으라. 너희는 죽는 일을 장차 나에게서 보라」고 이르셨도다.<sup>99)</sup>

상제께서 광찬이 불만을 품은 것을 심히 괴롭게 여기셔서 형렬에게 이르시니라. 「광찬이 자살하려는 것은 제가 죽으려는 것이 아니오. 나를 죽으라는 것이니라. 내가 정읍으로 가리니 이 길이 길행이라. 뒷 일은 네게 통지하리라.」二十八일에 상제께서 공우(公又)를 데리시고 동곡을 떠나 정읍 경석의 집에 가셨도다.<sup>100)</sup>

즉 상제의 化天은 천지공사를 확정짓는 것임과 동시에 도통을 받기 위한 수행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化天’이 가져다 주는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하겠다. 상제의 천지공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이 시대에서 인간이 ‘도통’이라고 하는 경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은 실로 이상적 세계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후 상제신앙의 목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상제의 化天으로 인해 천지공사는 비로소 그 본령과 전체체계를 갖추게 되며 이후 상제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인 도통을 위해서 그 수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상제의 종통을 계승하여 신앙의 체계를 수립하는 문제는 이러한 상제의 화천이 가져다 주는 의의와 더불어 그 가치실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또한 알 수 있다.

## 2. 教 運

### (1) 道主의 종통계승

상제의 화천 이후 상제에 대한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그 사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로서 강세의 歷史만큼이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道主는 바로 상제의 강세에 이어 그 종통을 계승하므로써 상제 신앙에 대한 체계를 확립한 인물이다. 상제의 천지공사를 잇고 그 공사를 현실적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道主의 종단 창설을 통한 思想的 闡明과 신앙의 대

99) 『典經』 행록 4장 55절

100) 『典經』 행록 4장 56절

상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道主의 탄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흥 민씨(驪興閔氏)가 어느날 하늘로부터 불빛이 밝게 자기에게 비치더니 그 후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으니라. 이 아기가 장차 상제의 공사를 뒤 이을 도주이시니 때는 을미년 십 이월 초나흘(十二月四日)이고 성은 조(趙)씨이요, 존휘는 철계(哲濟)이요, 자함은 정보(定普)이시고 존호는 정산(鼎山)이시며 탄강한 곳은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慶南咸安郡漆西面會文里)이도다. 이곳은 대구(大邱)에서 영산·창령·남지에 이르러 천계산·안국산·여항산·삼죽산·부봉산으로 연맥되고 도덕골(道德谷)을 옆에 끼고 있는 문동산·자고산의 아래로 구미산을 안대하고 있는 마을이로다.<sup>101)</sup>

도주께서 기유년(十五歲時) 四월 二十八일에 부친과 함께 고국을 떠나 이국땅인 만주에 가셨도다.<sup>102)</sup>

도주께서는 九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상제의 삼계 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sup>103)</sup>

도주께서 다음 해(1919년) 정월 보름에 이 치복(호:석성)을 앞세우고 정읍 마동(馬洞)김 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순임(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에 찾을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이니라. 부인은 봉서(封書)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하며 안심하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마을로 오셨도다.<sup>104)</sup>

즉 성은 趙씨요, 존호는 鼎山이며 1895년 을미년 음력 12월 4일에 탄강하여 상제의 공사를 뒤이을 道主로서의 사명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道主는 15세시(1909년)에 만주로 가서 9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1917년)에 상제의 삼계대순의 진리를 감오득도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도주의 역할은 상제께서 짜 놓은 천지공사를 뒤잇는 다고 하였으므로 공사의 연장선상에서 그 위격을 이

101) 『典經』 교운 2장 1절

102) 『典經』 교운 2장 4절

103) 『典經』 교운 2장 6절

104) 『典經』 교운 2장 13절

해해야 하리라 본다. 다음의 전경구절을 보자.

이 해(1918, 무오년) 시월에 도주께서 권 태로(權泰魯)의 몇사람을 이끄시고 모악산의 대원사에 이르시니라. 이때에 도주께서 「개벽후 후천(後天) 五만년의 도수를 나는 펴고 너는 득도하니 그 아니 좋을시구」라 하시고 이 정률에게 원평 황새마을에 집을 구하여 가족들을 그 곳에 이사 거주하게 하고 자신은 대원사에 몇 달 동안 머무셨도다.<sup>105)</sup>

윗 글에서 볼 때 道主는 상제의 천지공사를 뒤이어 이를 현실적으로 펴는 역할을 맡았음을 강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러한 공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현시켜 나가는 사명을 自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주가 상제의 종통을 계승하여 천지공사의 본령을 밝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만인으로 하여금 상제에 대한 신앙을 강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종단의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도주의 종단창설과 더불어 확립되는 신앙의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상제 화천이후 정립되는 상제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2) 宗團創設과 信仰體系

### 1) 종단의 창설

道主가 하나의 종교형식으로서 종단을 창설한 것은 상제화천(1909년)이후 16년만인 1925년 을축년에 이르러서이다. 이보다 전에 도주의 종단 창설을 위한 설법과 그 준비과정도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형식과 체계를 갖춘 것은 이 때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내용을 전경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종지(宗旨)

105) 『典經』 교운 2장 11절



음양합덕 · 신인조화 · 해원상생 · 도통진경(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

신조(信條)

사강령(四綱領)··· 안심(安心) · 안신(安身) · 경천(敬天) · 수도(修道)

삼요체(三要諦)··· 성(誠) · 경(敬) · 신(信)

목적(目的)

무자기(無自欺)

정신개벽(精神開闢)

지상 신선 실현(地上神仙實現) 인간 개조(人間改造)

지상 천국 건설(地上天國建設) 세계 개벽(世界開闢)<sup>106)</sup>

즉 종단의 명칭은 ‘無極道’이며 신앙의 대상은 강세하신 상제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여 정립하였다. 그리고 그 종교적 진리가 표방하는 하나의 사상적 총체는 ‘宗旨’ 네가지에 다 담았으며 이를 실천 수행해 나가는 방법은 ‘信條’로서 정하고 나아가 종교의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밝혔다. 이로써 하나의 종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것이며 이후 종단의 활동역사는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다양한 대응을 해 나가지만 그 종교사상적 개요는 최초 종단설립당시의 신앙체계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sup>107)</sup> 이에 상제 화천 이후에 정립되는 상제관의 내용은 주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신앙의 방법이 되는 신조가 중심이 된다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 2)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道主가 강세하신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로 봉안한데서 비롯된다. 그 구절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후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질 수 있다.<sup>108)</sup>

106) 『典經』 교운 2장 32절

107) 이후 종단 無極道는 1941년(신사년) 세계 2차대전 당시 일제의 종교단체 해산령에 의하여 종교활동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1945년(을유년) 해방을 맞이하여 신앙자유의 國是에 따라 다시 종교활동을 부활하게 된다. 1948년(무자년) 9월에 도본부를 경상남도 부산시에 설치하였으며 이때는 종단의 명칭을 太極道로 개칭하였다. 1958년(무술년) 3월 6일에 도주 조정산은 遺命으로 종통을 도전 박한경에게 전수하고 화천하게 된다. 遺命에 의해 종통을 계승한 도전은 1969년 4월에 종단의 전반적인 기구를 개편하고 종단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으며 동년 6월에 서울 특별시 중곡동에 중앙본부 도장을 창건하여 于今에 이르고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대순진리회요람』 4.연혁 참조)

108)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대순진리회 요람』에는 2. 신앙의 대상편에 구천상제(구

첫째, 九天이라 함은

전경에 「...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교운 1장 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성·불·보살의 신적 존재가 이 우주의 혼란한 위기를 당해 그 총체적 구원을 神界에서도 가장 높은 위격을 가진 절대자 상제께 하소연하였다는 말이니 이때 九天은 상제가 천·지·인 삼계를 두루 통찰하고 관령하고 계시는 가장 높은 位를 뜻한다고 하겠다.

둘째, 應元이라 함은

가장 으뜸가는 자리에 모두 다 응하고 있다는 뜻이니 모든 천체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天命이라고 하는 상제의 명에 응하지 않고는 생성됨이 없음을 말한다.

세째, 雷聲이라 함은

천둥과 번개를 가리키는 것으로 天令 즉 하늘의 명령이며 만물을 성장시키는 仁聲이라고도 한다. 雷는 陰氣와 陽氣 二氣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雷는 聲의 본체가 되고 聲은 雷의 작용이 되어 끊임없이 天·地 사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때 뇌성은 천기와 지기를 승강케 하며 만물을 성장하게 하고 생성변화 支配滋養하는 역할을 하므로 곧 상제의 권능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氣象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다.

네째, 普化라 함은

‘널리 된다’는 뜻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유형 무형으로 변화하고 생성되는 것이 모두 상제의 德化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을 뇌성으로 普化萬方하시는 상제가 지극히 높고 聖스러우며 존귀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섯째, 上帝라 함은

만 백성을 두루 살피는 임금과 같이 위에 있으면서 전 우주를 관령하고

---

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그 개념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다. 본문은 이에 입각하고 참조하면서 전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주가 처음에 봉안한 호칭으로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에 대한 설명의 형식을 취하기로 한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절대자 하느님의 존칭을 한자어로 표현한 말이다.

이상의 설명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의 개념을 굳이 풀이하자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니 보다 자세한 설명은 차후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밝혀져야 하리라 본다.

### 3) 信條

신조는 종교적 수행자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 올바르게 신앙해 나가기 위한 방법과 자세를 뜻한다고 하겠다. 이는 크게 四綱領과 三要諦로 나누어져 있으며 綱領이란 실천수행을 위한 訓典을 말하고 要諦란 신앙인이 반드시 지니고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요점이라고 하겠다. 그 구체적 설명에 대해서는 후대 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살펴보기로 한다.<sup>109)</sup>

#### ① 四綱領 - 安心 · 安身 · 敬天 · 修道

安心에 대해서는 「사람의 행동의 기능을 주관함은 마음이니 편벽됨이 없고 사사됨이 없이 진실하고 순결한 본연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허무한 남의 꾀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에 정신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하는 바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항상 마음을 안정케 한다」고 하였다.

安身に 대해서는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을 법례에 합당케 하며 도리에 알맞게 하고 의리와 예법에 맞지 않는 허영에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敬天에 대해서는 「모든 행동에 조심하여 상제님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하고 정성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修道에 대해서는 「마음과 몸을 침착하고 잠심하여 상제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을 모아서 단전에 연마하여 영통의 통일을 목적으로 공경하고 정성하는 일념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으로 봉축하여야

109) 본문은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대순진리회 요람』 7.信條 편을 인용하였다.

한다。」고 하였다.

② 三要諦 - 誠 · 敬 · 信

誠에 대해서는 「도가 곧 나요, 내가 곧 도라는 경지에서 심령을 통일하여 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라고 하였다.

敬에 대해서는 「경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고 하였다.

信에 대해서는 「한 마음을 정한 바엔 이익과 손해와 邪와 正과 편벽과 의지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앎하며 만고를 통하되 사시와 주야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을 경과하되 강하와 산악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고 하였다.

## V. 結 言

이상으로 대순사상에 나타난 상제관의 내용을 전통적 신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여 정리해 보면 먼저 상제신앙의 전통에서는 동양사상에 입각한 唯一者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을 살펴보고 그 호칭으로서 ‘上帝’의 칭호가 갖는 의의와 그 구체적 권능이라고 인식되어지는 측면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절대자 상제께서 전우주가 처한 급박한 위기 상황에 이르러 여러 신성 불 보살의 하소연으로 인해 人世에 강세하게 되었으며, 오직 상제의 권능으로써만이 천하를 널리 구제할 수 있는 역사를 단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그 역사란 ‘천지공사’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계의 공사였으며 이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지상낙원의 건설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상제의 천지공사를 현실화시키는 작업으로 道主의 종통계승과 종단창설의 과정이 대두되게 되는데 이 때 성립되는 신앙의 체계는 상제에 대한 위격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두에서 상제관이라 함은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립의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단지 그 호칭만을 아는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역사적 전개와 더불어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임을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정확히 깨우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道主가 정립한 신앙의 대상에 대한 호칭은 상제 강세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권능에 대한 경험적인 통찰을 전제로 할 때 이해 가능한 것이며, 나아가 그 호칭 하나 하나에 대한 개별적 설명을 토대로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수행해 나가면서 오늘날 그 의미의 타당성에 대한 신앙인 각자의 자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74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要覽』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詩經』

『書經』

『易經』

『禮記』

『周禮』

『說文解字』

『四書集註』

이낙의, 『漢字正解』                              비봉출판사, 1994

崔基福, 『儒敎와 西學의 사상적 갈등과 相和의 理解에 관한 연구』

성대 박사학위 논문, 1989

柳承國, 『東洋哲學研究』                      근역서재, 1988

孫世濟, 『天道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대 박사논문, 1992

주재용, 『先儒의 천주사상과 제사문제』      경향잡지사, 1958

윤성범, 『韓國的 神學』                              선명문화사, 1972

琴章泰,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 출판부, 1994

길희성, 『포스트모던사회와 열린종교』      서울 민음사, 1994

김능근, 『儒敎의 天思想』                              송실대출판부, 1988

가노나오끼, 『中國哲學史』                              을유문화사, 1993

柳承國 外, 『儒學原論』                              성대출판부, 1992